

인율에 따른 민감도분석을 실시한다.

**결과:** 유방암선별촬영술 시작연령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40대에 시작하는 대안이 50대에 시작하는 대안에 비해 우월전략으로 나왔다. 40세를 시작연령으로 하는 대안 내에서 비교하였을 때 2년간격으로 유방암선별촬영술을 시행하는 것이 1년간격시행보다 더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왔다. 2년간격으로 유방암선별촬영술을 시행하는 대안은 40세부터 50세까지는 1년간격으로 시행하고 50세이후는 2년마다 시행하는 대안보다도 비용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중 어느 대안도 선별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대안에 비해 우월하지는 못하였다.

**결론:** 한국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유방암선별촬영술은 40세를 시작연령으로 해서 간격은 2년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국내의 유방암 발생의 특징과 유방암선별촬영술 및 유방암 치료에 드는 비용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외국의 자료와 변수에 상당히 의존하였으므로 이 연구가 국내의 상황을 명확하게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효율적인 암 선별검진의 지침을 구축하기 위해서 비용-효과분석의 기초가 되는 비용 및 임상자료의 체계적인 구축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KSPM-100

### 여성노인의 운동참여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지표 분석 The Effect of Exercise Program on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Variables in Elerly Women

정은경<sup>1)</sup>, 이영훈<sup>1)</sup>, 신준호<sup>1)</sup>, 이정애<sup>1)</sup>

(1)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목적:** 본 연구는 노인에게 일정기간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한 후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노인 건강증진에 효과적인 방안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라남도의 일개 군에 있는 2곳의 경로당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연령으로 짝짓기 한 실험군 22명과 대조군 21명이었다. 운동 프로그램은 실험군에게만 주 3회, 1년 동안 적용하였으며, 운동에 의한 시간에 따른 혈압, 심박동수, 혈청 지질성분, 골대사 지표, 악력, 유연성, 민첩성, 통증정도, 삶의 질 지표 변화를 확인하고자 운동실시전, 운동 실시 3개월후, 운동 실시 1년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운동에 의한 시간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지표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안정시 이완기 혈압의 경우 실험군에서 운동실시전 88.05mmHg, 운동실시 3개월후 86.68mmHg, 운동실시 1년후 83.73mmHg로 대조군에 비하여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혈청 HDL의 경우 실험군에서 운동실시전 43.09mg/dL, 운동실시 3개월후 47.36mg/dL, 운동실시 1년후 51.09mg/dL로 대조군에 비하여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요중 DPD(deoxy-pyridinoline)은 실험군에서 운동 실시전 6.37nM/mM creatinine, 운동 실시 3개월후 4.45nM/mM creatinine, 운동실시 1년후 4.09nM/mM creatinine으로 대조군에 비하여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집단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연성의 경우 실험군에서 운동실시전 11.50cm, 운동실시 3개월후 12.78cm, 운동실시 1년후 16.52cm으로 대조군에 비하여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삶의 질의 경우 실험군에서 운동실시전 20.23점, 운동실시 3개월후 17.55점, 운동실시 1년후 17.72점으로 대조군에 비하여 시간에 따라 향상된 결과를 보였으며,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요중 DPD(deoxy-pyridinoline)과 삶의 질의 지표는 운동 실시전에 비해 운동 실시 3개월 후에, 안정시 이완기 혈압과 혈청 HDL, 그리고 유연성의 지표의 경우는 운동 실시전에 비해 운동 실시 1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노화과정에 있는 대조군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수 측정값이 대부분 변화가 없거나 저하된 반면,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에서는 향상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노인에서 운동은 신체적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노인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KSPM-133

### 중독흡연자(Hard-core smoker)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General Characteristics in hard-core smokers

고정애<sup>1)</sup>, 이준영<sup>2)</sup>, 김해준<sup>2)</sup>, 윤석준<sup>2)</sup>

(1)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purpose:** Hard-core smokers are defined as heavy smokers who rarely have quitting histories, so are expected never to quit smo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public health programs by analyzing general characteristics of hard-core smokers. The survey was done with 1,044 adults in Seongbuk-gu from December 20, 2002 to December 23, 2002.

**method:** Research subjects were composed of 58 hard-core smokers, 225 current smokers and 134 ex-smokers. Characteristics of hard-core smokers comparing with those of current smokers as well as ex-smokers were evaluated using univariable groupings and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models.

**results:** Study result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roportion of hard-core smokers in and over the twenties who lived in Seoul in 2002 was estimated by 5.6%.
2. From the univariat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who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in smoking were age, marital status, and its education level.
3. The univariate analysis showed that the family-smoking was a significant factor for hard-core smokers.
4. While no difference was found in relation to initial smoking age, hard-core smokers and ex-smokers were more likely to have been heavier smokers than the current smokers.
5. Hard-core smokers had less positive attitude than others related to an

opinion of hazard of smoking to health.

**conclusion:** In 2002, 5.6% of Seongbuk-gu smokers in and over twenties were hard-core smokers. Compared with other smokers, It was found that a person who was in '30-40th', '12 years of education' and 'married' would be more likely to be hard-core smoker. It was also found that a hard-core smoker tended to start smoking at younger age than others groups and also showed more negative health opinions to smoking than other groups.

#### KSPM-173

### 고등학생들의 암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신념에 관한 연구 Knowledge, attitude and beliefs about health and cancer prevention : the views of high school students

한지현<sup>1)</sup>, 백은미<sup>1)</sup>, 윤태형<sup>1)</sup>, 한동운<sup>1,2)</sup>

(1) 한양대학교 보건의료연구소, (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

**목적:** 최근 암 발생의 증가는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그 발생위험요인으로는 환경적인 요인과 일상적인 생활습관이 주 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계속적으로 보고 되고 있다. 특히 개인의 건강행위가 그 주요 원인의 하나이며, 이는 사회·심리적,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에 의한 영향을 받으며, 또한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건강행위나 태도, 지식습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어 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보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암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신념에 대한 실태와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방법:** 서울지역의 H고등학교 학생 460명에 대한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총 430개의 설문지를 최종분석 하였다. 설문내용은 기존 연구논문에서 사용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토대로 연구목적과 대상에 맞게 수정하였고, 예비조사를 통해 보완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크게 건강에 대한 ①지식, ②태도, ③신념, 암에 대한 ④지식, ⑤태도, ⑥신념으로 구분하였다. 응답자의 건강행위를 바탕으로 암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신념을 알아보기 위해 건강 및 암에 대한 지식과 태도, 신념을 빈도분석, Chi-square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결과:** 첫째, 암에 대한 지식을 조사한 결과 암에 대해 응답자의 94%가 들어 본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대중매체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8%(422명)가 흡연은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다. 둘째, 암에 대한 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암에 대한 관심정도에서는 39%(169명)가 관심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각종 암중에서도 폐암이 가장 두렵다고 답하였다. 암에 대한 교육경험여부에서는 40%만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81%가 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암에 대한 신념을 조사한 결과 암에 대해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에서는 96%(413명)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고, 87%는 암은 예방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암에 대한 관심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암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정의 상관관계( $r$

값=.190)를 보이고 있으며( $p<0.01$ ), 암에 대해 관심이 많을수록, 암이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교육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 값=.109, $p<0.05$ ).

**결론:** 청소년들에 있어 암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있는 질병이었으며, 대부분 상식적인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고 이는 생활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나, 생활태도에 있어서는 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은 잘 지켜지지 않았으며, 암에 대한 신념은 대부분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체계적인 암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시기부터 암에 대한 보건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학교 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KSPM-180

### 지역주민들의 암 조기검진 실천단계 조사: 예방책 채택과정 모형 (Precaution Adoption Process Model)의 활용 Stage Assessment of Cancer Screening Behavior: Using the Precaution Adoption Process Model (PAPM)

이명순<sup>1)</sup>, 강민정<sup>1)</sup>

(1)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목적:** 암은 우리 나라 국민들의 사망원인 1위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암 발생 및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암 조기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재, 국가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시민들의 암 조기검진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대상집단의 암 조기검진 실천 정도에 따른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Precaution Adoption Process Model(PAPM)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암 조기검진 실천정도를 조사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암 조기검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방법:** 조사 대상집단은 4개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암 조기검진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서 31세 이상 65세 미만인 지역주민 1,0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표본추출은 성, 연령, 암 검진비용 혜택여부 등을 고려해서 할당표본추출을 하였다. 조사내용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암 조기검진 실천단계, 암 및 암 조기검진 관련 요인 등이다. 조사도구는 PAPM에 근거하여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조사설문서 형태로 개발하였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조사설문서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또는 조사원에 의한 개인 면접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암 조기검진 실천단계, 암 및 암 조기검진 관련 요인 등에 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암 및 암 조기검진 요인에 따른 암 조기검진 실천단계 분포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PAPM에 근거해서 암 조기검진 실천정도를 6단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암 조기검진 고려단계가 2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암 조기검진 실시단계 28.6%, 암 조기검진 비인식 단계 18.9%, 암 조기검진 실시결정단계 11.6%, 암 조기검진 무관심단계 9.7% 순으로 나타났다. 암 조기검진 비실시 결정단계는 1.5%에 불과하였